

[유통]

김명주  
 02-3774-1458  
 myoungjoo.kim@miraeasset.com

# 유통

## Daily 코멘트 및 뉴스 업데이트

### 유통 코멘트

**SSG닷컴, 셀러리포트 개발 후 본격 서비스 시작** <https://bit.ly/2MtMuEV>

- SSG닷컴, 최근 입점 셀러들이 1) 주문량과 2) 고객 분석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셀러 리포트 개발. 본격적인 서비스 시작
- 셀러리포트의 개발 이유는 셀러,바이어 간 실적 공유를 통해 효율적인 판매 전략 수립을 위함임
- SSG닷컴은 내년까지 1) 상품 관련 심층 데이터 분석 시스템 개발하고 2) 고객 구매 패턴 분석한 프로파일링 데이터도 셀러에게 제공할 계획
- SSG닷컴 뿐 아니라 네이버(퀵에스크로), 위메프(파트너 지원 프로그램), 11번가(안심환불제) 등 대부분의 온라인 플레이어들이 셀러 편의성 향상을 위한 노력 중
- 판매 채널의 확대(ex 블로그, 인스타 등)에 따라 경쟁력 있는 셀러 확보가 플랫폼의 거래금액 증가 및 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
- 쿠팡 또한 1)거래금액 증가와 2) 수수료 수익 증대를 위해 오픈마켓 비즈니스를 확대해 나갈 것
- 이를 위해 현재 전략인 저렴한 입점 수수료 이외에 셀러 편의성 향상을 위한 전략을 갖출 가능성 높음 (ex 로켓배송 서비스 제공 등)
- 온라인 플레이어의 이러한 움직임은 1) 오픈마켓 비즈니스의 진화와 2) 플랫폼 간 경쟁 심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

### 전일 주요 뉴스

- 코리아센터, 9~10월 신고서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 가치는 6,500~7,000억원 논의되고 있음 (작년 12월 11번가 투자 시 5,500억원) <https://bit.ly/2SPVvcy>
- 우아한 형제들, UCLA과 함께 요리 로봇 개발 착수 <https://bit.ly/2YsWiki>
- 요기요, 업계 최초 정기 구독 서비스 ‘슈퍼클럽’ 출시. 월 9,900원 정기 결제 시 앱 내 모든 음식점 메뉴 월 10회, 3천원 자동할인 받을 수 있음 <https://bit.ly/2K9ht6D>

### ① 롯데쇼핑 (전일주가 -2.79%)

- 롯데홈쇼핑, 정통부의 업무정지 처분에 2차 행정소송 제기 <https://bit.ly/2MoEAMS>
- 롯데리츠, 회사채 수요 예측에서 4.4대 1 경쟁률 기록 <https://bit.ly/2Ysabnn>
- 롯데마트, 자체 의류 브랜드 ‘테’ 철수 결정. 연내 모든 매장 철수 계획 <https://bit.ly/2yiwj40>

### ② 롯데하이마트 (전일주가 -3.22%)

- 롯데하이마트, 7.15~28일 식기세척기 판매량 전달 대비 35% 증가 <https://bit.ly/2MoxCro>

### 미래에셋대우 유통 커버리지

종목명	티커	투자의견	목표주가	주가	시가총액 (십억원)	성과(%)				
						1W	1M	3M	YTD	1Y
롯데쇼핑	023530	Trading buy	220,000	139,500	3,946	-3.8	-13.1	-22.1	-33.9	-31.1
이마트	139480	매수	190,000	123,000	3,429	-4.7	-12.1	-28.3	-32.6	-43.6
신세계	004170	매수	360,000	259,500	2,555	-6.8	-13.8	-21.2	1.4	-22.3
롯데하이마트	071840	Trading buy	53,000	36,050	851	-6.8	-17.5	-23.5	-22.7	-55.3
현대백화점	069960	매수	125,000	74,800	1,751	-5.0	-9.6	-25.2	-17.3	-23.6
GS리테일	007070	매수	48,000	37,600	2,895	-2.6	-4.3	-3.7	-7.2	17.1
BGF리테일	282330	매수	262,000	202,000	3,491	1.3	-4.3	-6.5	-1.0	23.2

주: 2019.7.29일 기준, 자료: Bloomberg,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

### 글로벌 유통기업 Peer valuation

이름	티커	시가총액		수익률					P/E(X)		P/B(X)		ROE(%)	
		Local	USDmn	1W	1M	3M	YTD	1Y	19F	20F	19F	20F	19F	20F
롯데쇼핑	023530 KS	3,946	3,333	-3.8	-13.1	-22.1	-33.9	-31.1	14	12.4	0.3	0.3	2.4	2.7
이마트	139480 KS	3,429	2,896	-4.7	-12.1	-28.3	-32.6	-43.6	11.9	9.8	0.4	0.4	3.5	4.1
신세계	004170 KS	2,555	2,158	-6.8	-13.8	-21.2	1.4	-22.3	5.0	8.7	0.6	0.6	19.6	6.9
롯데하이마트	071840 KS	851	719	-6.8	-17.5	-23.5	-22.7	-55.3	8.2	7.6	0.4	0.4	5.0	5.2
현대백화점	069960 KS	1,751	1,478	-5.0	-9.6	-25.2	-17.3	-23.6	7.7	6.6	0.4	0.4	5.4	5.9
GS리테일	007070 KS	2,895	2,445	-2.6	-4.3	-3.7	-7.2	17.1	20.2	17.2	1.3	1.2	6.6	7.4
BGF리테일	282330 KS	3,491	2,949	1.3	-4.3	-6.5	-1.0	23.2	20.9	18.5	5.4	4.4	28.8	26.3
GS홈쇼핑	028150 KS	1,101	930	-2.8	-2.5	-1.9	-6.6	-12.1	8.9	8.6	0.9	0.9	10.7	10.1
현대홈쇼핑	057050 KS	1,138	961	-3.7	-10.6	-6.6	-4.2	-13.8	7.8	7.3	0.6	0.6	8.6	8.6
Walmart	WMT US	322,641	322,641	0.2	2.3	11.3	21.3	28.2	23.3	22.4	4.3	4.1	18.7	19.0
Kroger	KR US	17,158	17,158	3.0	-1.1	-16.0	-21.9	-25.2	9.9	9.3	1.8	1.6	20.8	17.8
Costco	COST US	123,743	123,743	0.4	6.5	15.2	38.1	28.1	34.4	32.9	8.4	7.4	25.6	23.7
Target	TGT US	44,604	44,604	-0.2	0.5	11.9	31.7	8.6	14.7	13.8	3.8	3.6	26.5	26.3
Macy's	M US	7,064	7,064	3.5	6.6	-5.1	-23.2	-42.1	7.4	7.8	1.0	1.0	14.6	13.2
Bestbuy	BBY US	20,763	20,763	2.7	11.5	5.9	46.8	4.1	13.7	12.9	5.8	5.6	43.9	43.3
Nordstrom	JWN US	4,717	4,717	6.1	-4.3	-25.3	-34.6	-41.3	9.0	8.7	6.4	7.9	60.5	75.9
Ocado	OCDO LN	8,854	10,918	4.0	8.7	-8.7	60.6	12.0	-	-	12.5	13.6	-16.4	-7.5
Isetan Mitsukoshi	3099 JP	345	3,172	-2.0	-0.3	-17.8	-28.3	-35.8	22.7	17.7	0.6	0.6	2.6	3.2
Takashimaya	8233 JP	222	2,041	1.0	5.7	-0.1	-11.1	-32.9	10.8	11.6	0.5	0.5	4.7	4.2
Seven & I holdings	3382 JP	3,337	30,704	2.1	3.2	-2.5	-21.3	-18.7	15.5	14.1	1.3	1.2	8.3	8.7
Familymart	8028 JP	1,194	10,989	-4.3	-8.4	-20.6	-32.3	-10.1	23.6	23.0	2.0	1.9	8.5	8.2
Lawson	2651 JP	545	5,012	2.6	5.0	4.6	-21.9	-19.9	29.5	21.3	2.0	1.9	6.6	8.9

주1: Local 시가총액은 십억원, 십억엔, 백만달러임  
 주2: 일본기업은 FY2019와 FY2020에 해당함  
 주3: 연결기준, 롯데하이마트는 개별 기준  
 자료: Bloomberg,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

### Compliance Notice

- 당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신세계, GS리테일, 롯데쇼핑, 이마트(을)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워런트증권에 대해 유동성공급자(LP)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.
-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.